

## 경제문제시리즈

# 석유파동



□中東戰爭의 부산물로 급격히 몰아닥친 석유파동은 전세계적인 자원고갈의 위기를 유발했다. 특히 한반울의 석유도 안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띠고 크나큰 타격을 가하고 있다. 석유파동은 곧 불가파동을 안고와서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 절실히 느끼는 현실이다.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사람 한사람은 소비성을 줄이고 절약위력으로 이끌어 가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될 줄 안다.

◆속편엔 경제면중 “석유파동”을 알아본다. <편집자>

## 한겨울 産室의 시련 中東戰爭의 탓으로만 돌릴 것인가.

金 成 斗  
<조선일보논설위원>

석유파동이 배마침의 寒波에 실려 우리에게 가지가지로 쓰라린 시련을 안겨 주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애처로웠던 것은 어미 뱃속에서 갓난 아기가 추위에 새파랗게 되어 있어도 産室을 데워 줄 수가 없었다는 소식이었다. 갓난 아기에게 실내온도를 30도 이상을 유지해줘야 하는데 기름부족으로 20도를 유지해 주기도 힘들다는 것으로 간호원들이 을상이 되어 있더라는 기사를 읽고 분통같은 것이 솟구쳐 오름을 느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태어나는 순간에서 시련부터 안겨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그것을 우리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中東戰爭의 탓이라 변명해봐도 후련해 질 것 같지는 않다. 급한 수술을 연기 시키고 입원환자들이 떨며 한겨울 밤을 지새웠다는 것은 白衣의 天使들로서는 정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으로 이 소동을 벌여야 하고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며 앞으로 그런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인가고 묻는 간호협회의 이 청탁은 바로 그런 간호원들의 고통에서 우려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필자는 그런 물음에 답할 하등의 지식과 전덕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필자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런 물음에 뚜렷하

게 답할 사람은 있을상 싶지 않다. 석유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는 아랍사람들 까지도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솔직한 실정이다. 아랍세계가 기름공급을 줄이고 있는 것은 그들과 이스라엘사이의 분쟁에서 아랍세계가 유리한 高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내 세우고 있다. 이스라엘과의 분쟁을 유리하게 이끈다는 것이 어찌서 다른 나라에 대한 석유공급을 줄이는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고 반문할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中東戰爭의 묘한 점이다. 분쟁은 아랍세계와 이스라엘사이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그 뒤에서는 많은 強大國들이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다. 아랍의 뒤에는 소련 중공등이 관여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美國등 西方세계가 支援해 왔다. 특히 미국은 줄곧 이스라엘에 대해 武器를 공급해 오고 있는 것이다.

아랍세계가 서방세계에 대해 석유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기로 한 것은 美國등 西方세계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대한 支援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압력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石油가 없어서는 안될 중요불자인 동시에 그것을 중동아랍지역이 아니고서는 능히 필요한 양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세계석유자원의 7할가까이가 아랍지역에 편중되게 집중되어 있으며 세계 각국간에 거래되는 석유의 8할이상이 중동에서 공급되는 것이라는 것 만으로도 그것이 큰 압력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볼 때 아랍의 요구대로 美國 등 西方 세계가 이스라엘에 대한 支援을 전면 중단하기만 하면 석유공급은 옛날로 되돌아 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밟고 또는 아랍을 밟는 強大國의 力關係가 그렇게 단순치가 않다. 거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支援을 중단한다고 해서 곧 얼마든지 석유공급을 풀 것인지에도 疑問이 없지 않다. 石油가 남아 나도록 풍족하게 공급하는 것 보다 자랄듯 모자랄듯하게 공급하는 것이 값을 끌어올리기가 수월한 동시에 資源을 오래도록 保全할 수 있다는 것을 아랍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게 되었다.

## 二

우리는 우리가 쓰는 石油의 전부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세계에서 들여오고 있다. 따라서 아랍세계가 석유를 풍족하게 공급해 줄 것인지 아닌지, 석유값을 어떻게 조작해갈 것인지 하는 것에 따라 우리나라의 석유사정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랍세계가 앞으로 석유자원을 가지고 그 값이나 공급을 마음대로 휘주무를 것만 같으니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긴 우리가 석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국내의 석탄자원을 더 많이 활용하기로 한다면 그만큼 產油國의 橫暴에서 받는 영향을 또한 줄일 수 있다. 우리가 아랍세계의 조작에 이토록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석유에 매달리는 度가 크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依存度를 줄이기는커녕 갈수록 더욱 그것을 늘여나갈 수 밖에 없게 되어있으니 그것이 딱한 것이다.

64년에 1백18만k의 석유를 소비했던 우리나라는 72년에는 1천3백70만k를 소비하고 있다. 지난 8년동안에 11배나 더 많은 석유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석유를 그토록이나 많이 소비하게 된 다른 한편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탄이나 薪炭의 사용은 자연 줄어들 밖에 없었다. 67년에는 1천2백70만톤까지 생산실적을 올렸던 石炭은 석유사용에 밀려 68년과 69년엔 1천만톤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작년엔 와서 비로소 67년의 생산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石炭을 태고있던 공장이나 發電所가 모두 石油사용으로 전환하는 큰 건물의 난방용으로부터 가정의 온돌 취사용까지 석유를 태는 집이 늘어나고 있으니 석유소비가 급증하는 다른 한편으로 石炭의 생산은 줄거나 제자리거름만 할 것이 정한 이치다. 하긴 석유를 안써도 좋을만큼 石炭資源이 풍부하지는 못하고 석탄대신 薪炭을 쓰기에는 山林이 너무 메말라 있다. 또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薪炭으로서는 도저히 적당하지가 못한 것이 많다. 어쨌든 石油는 적지않게 들여와야 하고 사용할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필요한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흥청 망청으로 그것을 낭비해 왔던 것이다. 기름이라고는 한방울도 나오지않는 이곳에서 온돌 아궁이까지 기름을 태고 있는 관국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기름이 그렇게 무제한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이지마는 또 그렇게 풍족하게 공급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그것 가까운 줄을 모르고 낭비하는 습성을 길러 놓고 있는 것이다. 가정에서뿐 아니라 공장에서조차도 필요이상으로 기름을 쓰고 있다. 똑같은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보다도 30% 내지 40%나 더 많이 기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잔뜩 기름 낭비하는 습성을 길러놓은 위에 갑작스레 그 공급이 줄어들었으니 낭패가 안날 수가 없다. 지금식으로 기름낭비하는 습성을 길러 가다가는 중동전쟁이 없었더라도 어차피 탈은 나게 되어있다. 그것 한방울도 外貨없이 는 못들여온다. 한때 그렇게 흥청대는 석유낭비물 지탕하기에는 外貨事體이 도저히 자랄수가 없는 것이다. 그뿐인가. 產油國이 석유값을 마음대로 끌어 올리는때 따라 그 국내 판매값을 올려줘야 하는만큼 국내물가가 안정될 수가 없다. 석유사용량이 큰 만큼이나 그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12월4일)도 정부는 석유류값을 평균 30%나 올렸다. 값이 비싸지면 그만큼 소비가 줄 것으로 기대하고 한다는 얘기지만 실은 그동안 월유도입 값이 올라 도저히 그때로 묶어둘 수만 없게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솔직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어쨌던 석유사용은 줄일수록 좋다. 가정에서 석유파동이 어찌느니 해도 연탄아궁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집들은 적어도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별로 고통을 겪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공장에서도 석탄을 그대로 태고 있었다면 큰 탈을 겪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다. 적어도 석탄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공장은 그렇다. 電氣도 너무 조금하게 석유로 전환하지 않고 새로 시설하는 발전소도 되도록 석탄이나 석탄과 기름을 섞어 태는 식으로 세워왔다면 두час스럽게 전등 한개 덜 쓰기 운동같은 것 별이지

않아도 좋았을런지 모른다. 그리고 병원 난방도 기름만 때도록 고치지 않았던들 갖난 아기에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련을 안겨주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다.

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되도록 기쁨은 안 쓰고 견디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다. 메마르다고는 하지마는 아직도 30~40년 동안은 파출 석탄자원은 있다. 파 쓸 수 있는 한 파 쓰고 그래도 모자라는 것은 석유로 들여오기로 하되 될 수만 있으면 그것은 최저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의회부족도 큰 걱정거리가 되지않고 그 가격폭동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최저한으로 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랍사람들이나 국제석유자본이 또 무슨 橫暴를 부리더라도 콧방귀를 뀌고 넘길 수 있는 것이다.



### 「Badge 판매」



섭외공보부에서는 회원들을 위한 본회 마크로된 메달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Uniform 및 일반의상에도 착용할 수 있으며 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신학교의 구별없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공동체라는 유대의식을 갖게된다.
2. 해외에 체재하고 있는 회원들이 서로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고국의 협회 활동을 인식하고 자랑할 수 있게하기 위함이다.
3. 가격(개당 300원)
4. 신청방법은 각지부 및 본회 섭외공보부에 신청한다.